

번역에서 글쓰기의 위상과 전략*

손지봉
(이화여대)

1. 서론

최근 대학에서는 ‘글쓰기’ 과목이 ‘대학 국어’ 과목을 대체하더니 이제 인문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¹⁾ 대학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확대되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2005년에는 한국작문학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성과는 글쓰기 연구가 ‘작문학’으로 인정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하게 한다. 왜냐하면 번역학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학계의 인정

* 본 논문은 한국작문학회 제13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과 지정토의를 맡아주신 남경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 정희모(111-112)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2004년부터 분야별 글쓰기가 개설되었고, 성균관대학교는 2005년부터 개설되었으며, 또한 ‘과학글쓰기’는 서울대학교가 2003년부터 개설되었다고 하였다.

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계가 학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현실적 입장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에 등재되는 것이 실질적 인정을 받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를 살펴보았다. 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에서는 ‘번역학’의 경우 언어학분야의 ‘번역’, 문학분야의 ‘문학번역’, 영어와 문학분야의 ‘영어통역번역학’, 통역번역학 분야의 ‘통역번역’, ‘번역’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려 4개 분류범주에 존재하고 있어 일견 폭넓게 인정받는 학문분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통역번역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기 전에는 그저 외국어문분야의 한 세부분과로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통역번역학이 하나의 학문분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98년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출범하고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이라는 학술지가 발간되고, 한국번역학회가 창립되고 『번역학연구』라는 학술지가 발표된 이후라 할 수 있다. 번역학은 이제 타학문 분야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학문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수사학, 문화학, 사회심리학, 문학, 언어학, 비교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문분류표에 번역학이 속한 4개 분류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어학’과 ‘문학’, ‘읽기’와 ‘쓰기’는 번역학 연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를 유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읽는 텍스트와 쓰는 텍스트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에서³⁾ 일반 언어학이나 문학에서의 읽기, 쓰기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번역학이 앞으로 정립될 ‘작문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번역글쓰기는 작문학에서 비중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학이나 작문학에서는 번역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글쓰기’가 번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번역글쓰기 현장에서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2) 세계적으로도 번역이 학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로 보고 있다. 먼데이(Jeremy Munday, 9)는 1988년 James S. Holmes가 쓴 ‘The Name &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를 번역학 독립에 공헌한 대표적 논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 3) 번역학에서는 번역 대상이 되는 읽는 텍스트를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 번역 내용이 되는 쓰는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라 한다.

2. 번역사에서 글쓰기의 위상

2.1 불경번역시대와 번역글쓰기

동양 번역의 역사를 보면 번역에서의 글쓰기 위상은 본래 일찍부터 보장되어 있었다.⁴⁾ 흔히, 중국의 불경번역사는 고역기(古譯期), 구역기(舊譯期), 신역기(新譯期)로 대별되는데, 고역기에는 범어(梵語)와 중국어를 이는 도래승(渡來僧)과 한문을 기록할 수 있는 중국의 승려가 2인 1조가 되어 불경을 번역하였다. 구마라집(鳩摩羅什)부터 시작되는 구역기에는 번역과정이 좀더 세분되어 ‘범어 불경을 암기하는 승려’, ‘암기하는 범어 불경을 받아쓰는 승려’, ‘받아쓴 범어 불경을 한어(漢語)로 음역하는 승려’, ‘한어로 음역한 불경을 한문으로 기록하는 승려’ 등이 4인 1조가 되어 공동번역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류를 보면 한문으로 기록하는 승려는 전적으로 쓰는 역할만 전담한 셈이다. 이런 세분화는 불경번역의 황금기인 신역기 현장(玄奘)의 시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장은 역주(譯主), 필수(筆受), 탁어(度語), 증범(證梵), 윤문(潤文), 증의(證義), 총감(總勘) 등의 직책을 두고 공동번역을 하였다.⁵⁾ 번역과정을 7단계로 나눈 셈이다. 여기에서 ‘역주’는 ‘주석 붙이는 사람’, ‘필수’는 ‘번역한 말 받아쓰는 사람’, ‘탁어’는 ‘번역’, ‘증범’은 ‘범어 원문과의 확인’, ‘윤문’은 ‘글다듬기’, ‘증의’는 ‘뜻의 확인’, ‘총감’은 ‘글의 일관성 확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7개 단계에서 뒤의 5개 단계를 글쓰기에 할애한 셈이다. 이로 볼 때 옛날의 불경번역에서 쓰기과정이 매우 중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되어 전문성을 부여하였던 번역글쓰기의 위상은 이 불경번역시기 이후에 다시 흥기되지 못한 듯하다. 근대까지도 대개 출발어를 배운 도착어 원어민 단독의 번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요즘 들어 출발어 원어민과 도착어 원어민 2인 1조 공동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불경번역의 고

4)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서양 번역사에서는 번역에서 글쓰기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쓰지 유미(27)는 서양에서의 번역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기원전 9세기경 카르타고에는 번역가 계급이 있어서 번역할 수 있는 언어의 수에 따라 문신의 모양이 달랐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 번역가가 여러 언어를 번역하는 경우는 보이지만 여러 번역가가 분담하여 번역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5) 손지봉(2007, 348-349), 梁曉虹.(69), 加地哲定著 劉園星譯(2), 이현우(195).

역기 번역 방식에 불과하다. 물론 당대 번역 여건과 현대의 번역여건 그리고 당대 경전인 불경의 번역과 근현대 일반 서적의 번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불경 번역시기보다 번역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번역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번역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관심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번역학에 대한 연구와 작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번역에서의 글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김혜영(2008)은 사회인지주의 쓰기이론을 번역글쓰기에 적용하여 글쓰기 이론에 번역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불경번역시대의 공동번역이든 아니면 번역가 개인이 수행하는 단독 번역이든 번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는 도착어 원어민이므로 번역글쓰기 연구는 우선적으로 도착어 원어민의 번역글쓰기를 우선적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2 '번역투'와 번역글쓰기

통역번역대학원 번역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과목이 요구되므로 글쓰기 과목을 별도로 개설할 여력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글쓰기과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글쓰기능력이 단번에 숙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사 지망생의 경우 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과정까지는 적절한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번역학과의 입장에서 대학과정 글쓰기 과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실제 통역번역대학원생의 번역에 대한 평가에서 성초림(45-46) 등은 도착어 표현미숙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착어 표현미숙의 이유로는 한국어에 대한 문장력과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지적되었다.⁶⁾ 이렇게 문장력과 논리력 부족으로 인한 표현미숙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착어 역량이 제대로 함양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번역글쓰기 연습의 부족에도 이유가 있다. 즉 번역글쓰기는 일반글쓰기와 달리 늘 출발어의 간섭을 받기 때문

6) 성초림 외(44)에서 번역 평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분석에서 외국어->한국어 번역의 경우 “한국어 텍스트의 전체적 논리성과 원문에 대한 이해 정도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이다. 특히 공동번역이 아니라 단독번역인 경우 이와 같은 간섭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번역투’가 드러나는 번역을 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투’ 글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벌 번역이후에 출발어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도착어 텍스트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재번역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발어 텍스트를 본 적이 없는 제3자가 운문을 한다면 단독 번역보다는 ‘번역투’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학에서 제거대상으로 삼고 있는 번역투에 대한 논의는 국어학 연구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한국에서의 국어학 연구는 일제시대에 시작되어 국어연구가 바로 광복운동이라는 의식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수주의적 관점에 얽매어서 객관적인 연구를 저해하기도 하였지만 국어연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켜 국어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다. 즉, 한국어 바로쓰기의 일환으로 한문,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문에서 형성된 번역투의 역기능에 대해 즉, 국어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지적해왔다.⁷⁾

최근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번역투를 다문화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포용 대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올바른 한국어 사용에는 맞지 않는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김정우(2003)는 한국 국어교과서에서의 번역투를 고찰하여 번역투가 일상화된 한국 국어 현실을 지적하였다. 즉, 국어교과서에 영어번역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영어구문형식, 전치사구 등 특정 영어의 언어적 특성이 한국어로 전이되는 양식을 조목조목 거론하였다. 이근희(2005)는 번역투를 고찰한 전문 저서에서 대명사, 동사, 구, 무생물 주어, 문장부호 등 13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그 유발요인과 대처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런 번역투의 현상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시 박여성(2003), 장현주(2006), 오경순(2007) 등 번역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각각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은 번역문이 도착어국의 문화를 살찌웠듯이 번역투에도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결같이 도착어 텍스트가 번역문임을 느낄 수 없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근희(231)는 번역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7) 송민(1988)는 일본어 번역투가 국어에 간섭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영희(2002)는 번역과 식민주의적 기능을 연관시켜서 번역투를 국어순화의 역기능으로 평가하였다.

- 1) 단어 대 단어 번역이나 직역의 방법을 피한다.
- 2) 원천언어의 체계에서 비롯되는 어휘적 문법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
- 3) 목표언어의 체계 내에서 맥락과 단어들 간의 조응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다.

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읽는 즉시 번역하는 직독 직역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읽어서 전달하려는 핵심의미를 파악한 뒤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도착어를 선택하여 번역하라는 말이다. 둘째, 원천언어는 나름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적 특성이 있는데 원천언어의 언어적 특성이 도착언어에 나타나지 않도록 번역하라는 말이다. 한국어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소유격 조사 ‘~의’를 많이 쓰며 특히 ‘~에의’처럼 조사를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셋째, 영어의 경우 ‘have’나 ‘make’ 등은 ‘갖는다’, ‘만든다’는 뜻 외에 ‘먹는다’, ‘입는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 조응되는 다양한 단어들을 풍부하게 구사해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같은 어휘로 표현하는 영어번역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번역투를 벗어나는 방법의 핵심은 ‘원천언어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언어만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즉, 번역문이 출발어 텍스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도착어 텍스트 자체의 논리로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착어 글쓰기 역량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번역현장에서의 글쓰기

필자가 경험한 번역현장은 국제회의 학술논문 번역부터 시와 소설 같은 문학서, 전문학술서, 광고, 협정서, 회칙, 논문 요약문, 홈페이지, 기업 ppt, 제품 매뉴얼, 안내장, 축사 등등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현장에서의 글쓰기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풀어갈 것인가? 먼저 위 각각의 현장을 범주화하고, 번역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글쓰기 단계 등을 정리하고 차례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아가기로 한다.

3.1 전문번역과 문학번역

번역사가 접해야 하는 번역현장은 상당히 다기해서 범주화하기 어려운데 번역계에서는 대개 ‘전문번역’과 ‘문학번역’으로 대별해서 논하고 있다. 문학번역이 번역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전문번역은 일반적인 실용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번역을 말한다. 전문번역의 대상은 전문적, 기술적, 학문적 성격을 지닌 텍스트들이다. 장 드리슬(Jean Delisle)은 전문번역의 대상이 되는 실용텍스트를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학적 측면이 지배적이지 않은 텍스트”라고 정의하였다.(Christine Durieux, 8) 간단히 말하면 문학번역 이외의 번역은 모두 전문번역이라 할 수 있다.⁸⁾

전문번역텍스트는 표현기능보다 정보전달기능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학번역텍스트와 구분된다. 문학번역에서는 은유적 표현이나 정서적 분위기가 제대로 번역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문번역에서는 의미전달이 가장 우선시된다.

문학번역 예문)

“Mrs Morel was not anxious to move into the Bottoms, which was already twelve years old and on the downward path, when she descended to it from Bestwood(모렐 부인이 베스트우드에서 보텀스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는 보텀스가 세워진지 이미 십 이년이나 되었다. 그녀는 내리막길이 있는 마을로 이사하고 싶지 않았다”.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446,447)

전문번역 예문)

“The developments of home, education and game software, and spreadsheet programs for end users, will contribute to small software houses taking an increased market share in the future.(가정, 교육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의 발전, 그리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스프레시트 프로그램은 앞으로 작은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Christine Durieux, 124)

8) 번역교육에서는 ‘미디어번역’을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영화 같은 시나리오 번역으로 넓은 의미의 문학번역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문학번역 예문은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에서 모델 가족이 사는 광부 사택 이름인 보텀스(The Bottoms)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광부사택을 ‘밑바닥’을 뜻하는 ‘botto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에서는 외면적인 물리적 표현에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⁹⁾ 밑줄 친 ‘내리막길이 있는’은 언덕의 아래에 있다는 실제 위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델 가족의 신분이나 처지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의미를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번역의 예문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의 발전이 미래에 가져올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 이중적 의미를 지니거나 비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2 번역 단계

번역의 과정을 광성희(2001)는 제1단계 목표 텍스트의 기능 분석, 제2단계 원문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 제3단계 적절한 전환을 거쳐 가장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필자는 목표 텍스트의 기능분석은 준비단계일 뿐이며, 필수적인 단계로는 제2,3단계를 들 수 있고 제3단계는 다시 전환단계와 표현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즉, 제1단계는 출발어 텍스트의 이해와 분석, 제2단계는 언어간 전환의 모색, 제3단계는 도착어 텍스트로의 표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화는 신역기 불경번역의 단계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신역기의 현장은 제2단계를 ‘타어’라 하고 이어서 4개의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4개 단계가 도착어 텍스트로의 표현에 해당된다.

플라워(Flower, L. & Hayes J. R., 1980)의 글쓰기 9단계 중에서 ‘7단계 글과 글쓰기 목적의 검토’, ‘8단계 글의 평가와 편집’, ‘9단계 글을 일관성 있게 편집’ 등이 각각 불경번역에 있어서 ‘증범’, ‘윤문’과 ‘증의’, ‘총감’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¹⁰⁾ 불경번역 단계를 플라워의 글쓰기 단계대로 풀이하면 ‘증범’은 7

9) 앞 책 같은 쪽에서 평자들은 ‘on the downward path’의 표현을 어떤 번역가는 ‘평판이 기울다’라고 하여 정서적 의미만 드러냈고 어떤 번역가는 ‘낮고 지지분하다’고 하여 실제적 양상만 제시한 반면 이 번역은 ‘내리막길이 있는’이라고 하여 이중적 의미가 잘 번역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0) 플라워는 글쓰기 과정을 1단계 수사적 문제 탐구, 2단계 계획하기, 3단계 아이디어

단계 출발어 텍스트 대로 표현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요, ‘윤문’과 ‘증의’는 각각 8단계의 도착어 텍스트로서 어색하지 않게 편집하는 일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하는 일을 뜻한다. 그리고 ‘총감’은 9단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용이 잘 연결되도록 교감하는 일에 비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필자는 번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1단계 출발어 텍스트의 이해와 분석
- 2단계 언어간 전환의 모색
- 3단계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 검토
- 4단계 도착어 텍스트로서 어색하지 않게 교정
- 5단계 뜻이 통하는지 검토
- 6단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용이 잘 연결되도록 교감

이 6개의 단계에서 4,5,6단계는 모두 도착어 텍스트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도착어 글쓰기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는 번역에서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3.3 번역의 문제점

번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손지봉(2006 24)은 번역의 평가기준을 다루면서 ‘지나친 오역’, ‘오역’, ‘비문’, ‘오문’, ‘지나친 직역’, ‘지나친 의역’, ‘도착어 표현 미숙’, ‘핵심단어나 정보 누락’, ‘원문에 없는 정보 삽입’ 등 9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나친 오역 : 원문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부족으로 단어·구절·문장 등이 달라진 경우

생성하기, 4단계 아이디어 조직화하기, 5단계 독자 요구 파악하기, 6단계 필자 중심의 글을 독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7단계 글과 글쓰기 목표 검토하기, 8단계 글을 평가하고 편집하기, 9단계 글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편집하기 등 9단계로 설정하였다.

- ② 오역 :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하지 못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에 실패하는 경우
- ③ 누락 : 특별한 이유 없이 원문의 단어·구절·문장 등을 누락하여 원문의 의미 전달을 왜곡하는 경우
- ④ 첨가 : 특별한 이유 없이 단어·구절·문장 등을 첨가하여 원문의 의미전달을 왜곡하는 경우
- ⑤ 비문(非文) : 문장의 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문장이 안 된 글
- ⑥ 오문(誤文) : 내용상에 있어서 잘못된 문장
- ⑦ 지나친 직역 : 번역투 문장을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생경함을 느끼게 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
- ⑧ 지나친 의역 : 너무 도착어 독자를 의식해서 원문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경우
- ⑨ 도착어 표현 미숙 : 시대착오적 표현처럼 원문을 적절한 도착어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이상에서 ①~④는 출발어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출발어 텍스트 읽기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⑤~⑨은 도착어 텍스트의 문제로, 바로 글쓰기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⑤~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번역과 문학번역의 예를 들어 이들을 극복하는 글쓰기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⑤비문’과 ‘⑥오문’, ‘⑨도착어 표현미숙’ 등은 시대착오적이며, 문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윤문’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교정하게 된다.¹¹⁾ 그리고 이런 교정을 통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개 출발어 텍스트에 집착하다가 도착어 텍스트의 어휘와 문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착어 텍스트만 놓고 보면 문제점

11) 이와 같은 문제점은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의 평가에서 지적되었는데 이 책을 지은 저자들은 주로 추천본의 좋은 번역만 소개하다 보니까 ‘비문’, ‘오문’, ‘도착어 표현 미숙’ 등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번역예문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들은 지나친 직역이나 의역에 비해 명백한 오류이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도 잘 찾을 수 있고 고치는 방법도 단순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⑦지나친 직역과 ⑧지나친 의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3.3.1 지나친 직역

지나친 직역은 흔히 ‘번역투’로 표현되는 문제점으로 운문을 통해 도착어 표현에 맞게 가다듬어야 한다.

1-1 전문번역

1-1-1) The store has foreign goods for sale.

1-1-2) 그 상점은 판매할 외제품을 가지고 있다.

1-1-3) 그 상점에서는 외제품을 팔고 있다.

1-2 문학번역

1-2-1) Your grandfather wanted so badly to tell you everything. But things were difficult between you two. He tried so hard. There's so much to explain. So very much to explain. (The Da Vinch Code. Dan Brown 475)¹²⁾

1-2-2) 네 할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너희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어려웠지. 그는 노력했어. 설명할 것이 아주 많구나. 그래. 설명해야 할 것이 아주 많아. (『다빈치코드』 2. 양선아 314)¹³⁾

1-2-3) 네 할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몹시 말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너와 할아버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 할아버지는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단다.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설명할 것이 정말이지 너무나 많아.¹⁴⁾

1-1-2)의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영어 ‘has’를 그대로 직역해서 생기는 문제

12) 이근희(130)에서 재인용.

13) 앞 책, 같은 쪽.

14) 앞 책, 같은 쪽.

로 뜻을 오해하게 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번역투의 문장이다. 1-1-3)은 이를 윤문을 통해 도착어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1-2-2)의 ‘너희’, ‘그는’ 등은 영어 본문의 대명사를 직역한 경우인데 한국에 서는 준비어가 발달하여 ‘할아버지’를 손자와 동격으로 ‘너희’로 쓰거나 또는 ‘그’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3)처럼 ‘할아버지’라는 명사를 문면에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번역투는 동사나 대명사에서 뿐만 아니라 구절, 문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출발어 텍스트의 간섭에 의해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이므로 번역 후에 출발어 텍스트를 잊고 도착어 텍스트만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경 번역에서 ‘윤문’이라는 직책을 두고 ‘윤문’만 전담하게 한 일은 상당히 시사적인 일이다.

3.3.2 지나친 의역

2-1 전문번역

2-1-1) A Frankleyn was in his compaignye.¹⁵⁾

2-1-2) 그와 동행한 사람 가운데 시골유지가 있었다.¹⁶⁾

2-1-3) 그와 동행한 사람 중에 지방 소지주가 있었다.

2-2 문학번역

2-2-1) 쑥대밭에서 서너 길 솟아오른 핑과 장끼가 금세 제 체중을 못 이기고 팔매질이나 맞은 듯 성벽 너머로 쭈셔박히는 것이 보였고 그것들이 다시 나는 소리가 났다. 『동의보감』¹⁷⁾

15) 이 예문은 『켄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예문으로 문학번역의 예라 할 수 있으나 내용상에 있어서 실용텍스트와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전문번역의 예로 다루었다.(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62-263)

16) 앞 책, 같은 쪽.

17) 손지봉(2006, 24)에서 재인용.

2-2-2)

從草堆里飛上數十公尺的雌雄野雉承受不住自己的体重，好像中箭般撞上墻壁掉下來。然后又再次飛躍。『許浚』

2-2-3)

從草堆里飛上三、四人高的雌雄野雉承受不住自己的体重，好像被石頭打中似的，從城 牆的另一邊墜下來，然后又听到重新飛起的聲音。

2-2-1)의 'Frankleyn(fraklin)'은 “14, 15세기 영국 자유토지 보유지주, 자유 농민, 향사(鄕士)”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시골유지’는 시골에서의 지도층인사라는 뜻인데 이 어휘에는 ‘시골’이라는 뜻도, ‘지도층인사’라는 뜻도 없다. 현대에는 없는 개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상에 없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지나치게 의역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교감할 때에 가치중립적인 2-1-3)의 ‘지방 소지주’로 바꾸어야 한다.

2-2-2) ‘중전(中箭)’은 화살에 맞았다는 것으로 중국에는 돌팔매질로 새를 잡는 관습이 없으므로 중국의 문화에 맞게 ‘화살에 맞은 듯’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화살은 돌처럼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화살을 쏜 주체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나친 의역에서의 오역은 지나친 직역을 ‘윤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많다. 불경번역에서는 이 ‘윤문’의 전후로 ‘증범’과 ‘증의’, 즉 원문과 대조하거나 적절한 뜻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 윤문 후의 지나친 의역은 재검증을 통해 ‘총감’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의역은 글 쓰기 단계에서는 지나친 직역보다는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3.3 지나친 직역과 의역

지나친 직역과 지나친 의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대개는 초벌번역에서 지나친 직역을 하기 마련이며, 지나친 직역에서 만들어진 ‘생경한’ 번역투를 개선하기 위해 도착어 위주의 독자적인 번역을 하다보면 지나친 의역이 되어 버리기 쉽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윤문’글쓰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3.1 문학번역¹⁸⁾

3-1-1) He[Morel] and his fellow mounted the steep garden step, heaved into the candle-light with their gleaming coffin-end. Limbs of other men were seen struggling behind. Morel and Burns, in front, staggered; the great dark weight swayed.

3.1.2) 그와 그의 짝은, 험한 뜰층계에 올라서서 관 끝을 촛불에 번뜩이면서 올라왔다. 다른 사람들의 팔다리가 관 뒤에서 몸부림하는 것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앞에 선 모렐과 버언즈가 비틀거리자 커다란 시커먼 관이 흔들렸다.

3.1.3) 그와 이웃집 남자는 험한 돌층계를 올라서서 촛불 빛 속에 나타났다. 관끝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뒤를 받치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앞에 선 모렐과 버언즈가 비틀거리자 커다란 시커먼 관이 흔들렸다.

3.1.4) 그와 그의 동료는 가파른 뜰층계에 올라와 촛불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의 끝이 빛났다. 뒤편에서 애쓰는 다른 사람들의 팔다리가 보였다. 앞에 선 모렐과 버언즈가 비틀거렸다. 크고 검은 관이 흔들렸다.

3.1.2)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구문상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몸부림’이라는 번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렐과 버언즈의 뒤에서 관을 같이 들고 있는 모습보다는 그냥 관 뒤에서 ‘오열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으로 읽힌다.

3.1.3)은 3-1-2)의 ‘struggling’의 번역을 생략한 지나친 의역으로 뜻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와 표현의 효과적인 전달을 추구하는 문학번역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3-1-4)는 ‘애쓰는’으로 ‘struggling’을 번역함으로써 훨씬 개선된 번역양상을 보여준다. 3-1-2)가 앞 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원문을 지나치게 직역하였다면 3-1-3)은 앞 뒤 문맥에 맞춰서 지나치게 의역한 셈이고 3.1.4)는 출발어 텍스트를 대조하여 이를 다시 운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예문들이 적절한 번역으로 가는 연습과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

18) 아래 예문은 『아들과 연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449, 450)에서 인용.

다. 이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출판된 번역문이다. 3-1-2)는 1958년 동아출판사에서 출판한 김재남의 번역이며, 3-1-3)은 1973년 동서문화사에서 출판한 유영의 번역이다. 그리고 3-1-4)는 2002년 민음사에서 출판한 정상준의 번역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58년부터 2002년까지 44년에 걸쳐 운문과 교감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처럼 운문은 해당 문장 자체에 대해 행하게 되지만 앞 뒤 문맥을 고려하여 내용을 교감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몇 십 번 심지어 몇 십 년 동안 같은 문장에 운문과 교감을 반복해야 제대로 된 번역문을 얻을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번역에서 글쓰기의 위상을 점검한 결과 근대에 비해 고대 불경번역시기에는 번역에 포함된 다양한 글쓰기의 특징을 존중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제시기의 국어말살정책을 겪으면서 국어학 연구가 곧 광복운동으로 여겨졌으며, 번역학 연구 이전에 국어학 연구에서 한국어에서 외국어 특히 일본어의 흔적인 ‘번역투’의 제거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었다. 이처럼 출발어에 의해 도착어의 독자적 어휘와 체계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번역에서의 글쓰기는 독자적 위상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글쓰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번역 및 문학번역으로 나누어서 번역의 문제점 및 단계를 살펴보았다. 번역의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칠 수 있는 ‘오문’, ‘비문’, ‘표현미숙’ 등과 ‘번역투’의 원인이 되는 ‘지나친 직역’과 의미전달에 치중한 ‘지나친 의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중국 불경번역기의 번역글쓰기 단계와 플라위의 글쓰기 단계를 차용하여 번역글쓰기 단계를 6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6단계에서 4개 단계를 글쓰기에 할당하여 번역에서 글쓰기의 비중을 크게 잡았다. 이렇게 글쓰기 비중을 크게 잡은 이유는 신역기 불경번역

에서 원고 수정의 본령인 ‘윤문’과 ‘교열’을 중요시하되 출발어 텍스트와의 등가성, 도착어 텍스트로서의 일관된 의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번역 글쓰기에서 예문을 통해 지나친 직역으로 인한 ‘번역투’와 지나친 의역 등을 글쓰기 전략을 통해 개선시키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나친 직역, 지나친 의역, 상대적으로 적절한 번역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어 지나친 직역과 의역이 모두 적절한 번역을 위한 당연한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문학번역은 전문번역자보다는 실제 작가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문열의 『삼국지』를 보더라도 전문작가가 하는 경우 독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내용의 학술서를 대중서로 출판할 경우에는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글을 ‘윤문’할 작가를 섭외해야 한다고 한다. 학자나 작가나 모두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서로 집필할 역량을 갖춘 학자도 있지만 ‘전문’서를 주로 읽고 전문서를 주로 쓴 학자가 ‘대중’서를 집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윤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전문번역자는 작가는 아니지만 ‘윤문’전문가 수준의 글쓰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학자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글쓰기’에는 약할 수 있다. 전문번역자는 오랫동안 출발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착어 글쓰기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역량 있는 ‘도착어 능력자’에게 윤문 부분을 위임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번역학 연구는 번역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므로 번역글쓰기의 발전 없이 번역학연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번역학연구에서는 번역글쓰기 연구의 비중을 높여 전문번역자의 글쓰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번역글쓰기의 사례 수집과 이론 정립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03. 「국어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143-167.
- 김혜영. 2008.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번역의 단계별 전략」, 『번역학연구』 9:1. 71-93.
- 박여성. 2003. 「텍스트언어학의 입장에서 고찰한 번역투의 규명을 위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4. 243-293.
- 성초림 외. 2001. 「번역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번역학연구』 2:2. 37-56.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87-106.
- _____. 2007. 「번역과 문화전파」, 『중국어문학지』 24. 345-364.
- 송민. 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25-34.
- 쓰지 유미. 이희재 옮김. 2001. 『번역사 산책』. 궁리.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오경순. 2007. 「일한번역의 번역투고찰-텍스트 번역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61. 235-258.
- 원영희 .2002.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식민주의적 기능-영한번역에서 나타나는 대명사 ‘그’사용」, 『번역학연구』 3:1. 99-123.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이현우. 2002. 「한역불경의 음역어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총』 21. 191-213.
- 장현주. 2006. 「중한번역에서 번역투와 정보배열」, 『중국어학연구』 37. 345-364. 중국학연구회.
- 정희모. 2005. 「대학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 111-136. 한국작문학회.
- Christine Durieux, 박시현·이향 옮김. 2003. 『전문번역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 번역학총서 11. 서울: 고려대 출판부.

Flower, L. & Hayes J. R. 1980. *The cognition of discovery: Defining a rhetorical problem*.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0.

Jeremy Munday,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Kirk, S. H.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A Case Study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Seoul: Hankook Publishing Co.

加地哲定著 劉園星譯. 1990. 『中國佛教文學』, 北京: 今日中國出版社.

梁曉虹. 1994. 『佛教詞語的構造與漢語詞匯的發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Abstract]

Status and Strategies for Writing in Translation

Son, JiB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ive du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riting in translation and its difficulties, and to provide solutions as well. In translation and its evaluation, a great emphasis has been placed on writing. Therefore, writing can be said to play a crucial role in translation. Difficulties in writing for translation lie in overcoming "translationese" in which the traces of a source text can be readily detected. The issue of "translationese" which was originally one of the subjects dealt by Korean studies has been extended to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also presents an overly literal translation which is a main cause of "translationese" and an excessive free translation which places too much emphasis on communicating the message of a source text as obstacles to producing an accurate translation, and introduces writing strategies for translation as a solution. Furthermore, borrowed from those of machin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to Chinese and by Linda Flower, writing stages are established and then applied to writing strategies.

In this paper, 'refinement' and 'proofreading' are mentioned as important steps in the process of writing for translation. It also maintains that achieving an adequate equivalent to a source text and conveying a consistent message as a target text are equally important.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an overly literal translation and an excessive free translation be regarded as both obstacles to overcome and necessary steps in order to produce an adequate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writing, stages, strategies, translationese, refinement, proofreading,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손지봉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부교수

jbson@ewha.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 번역전략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